

육상, 인천 AG 목표는 금 3

(아시안게임)

대표팀 110m 허들 박태경 등 5명 미국서 훈련

한국 육상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3개 이상을 따내고자 물려 구슬땀을 흘린다.

대한 육상경기연맹은 국가대표 선발 계획과 운용안을 최종 확정하고 조만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먼저 연맹은 지난 10일 남자 110m 허들 대표팀 코치 겸 선수 박태경(33·광주시청)을 필두로 이 종목의 기대주 김병준(21·포항시청), 여자 100m 허들의 정해림(26·제주시청), 남자 10종 경기 김건우(33·문경시청), 남자 높이뛰기 유망주 우상혁(17·충남고) 등 5명을 국제 육상경기 연맹(IAAF) 훈련 센터가 있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로 보내 선전 기술을 습득하도록 했다.

선수들은 이곳에서 12월 19일까지 저명한 육상 코치인 댄 페프의 지도를 받는다.

연맹의 한 관계자는 “페프는 육상 대표팀의 총감독으로 영입하려 했으나 몸값 등이 맞지 않아 무산됐다”며 “대신 대표 선수들이 짚은 기간이나 마 그의 지도를 받고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단기 연수를 기획했다”

고 말했다.

우상혁은 도약과 단거리 전문가인 페프의 원 포인트 레슨을 받고 올해 7월 IAAF 세계 청소년 육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에는 김병준이 힘을 볼 것으로 연맹은 기대하고 있다.

울 시즌 실업단 대회, 전국 육상경기선수권대회, 전국체전 3관왕을 달성한 김병준은 이 종목에서 박태경의 뒤를 이을 재목으로 평가받는다.

최고기록은 지난달 동아시안게임에서 작성한 13초61로 한국기록(13초48)에 0.13초 뒤진다.

연맹은 190cm라는 좋은 신장을 지닌 김병준을 멀리뛰기 김현기(28·광주시청), 남자 창던지기 박재명(32·대구시청)과 더불어 내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낭보를 전해줄 삼총사 중 1명으로 꼽고 있다.

연맹은 해외 훈련팀과 별도로 종목별 정예 멤버 30~40명을 꾸려 12월 1일부터 해병대 극기훈련을 치르고 경북 문경에 있는 국군체육부대에서 국내 단기집성을 벌일 계획이다.

김복주 연맹 기술위원장은 “아시

안게임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일찍 대표팀을 가동해 겨울부터 구슬땀을 흘리도록 할 작정”이라고 설명했다.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대표팀을 소수 정예로 개편한 연맹은 태극마크를 달리는 선수들이 소속 실업팀에서 치밀하게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도록 미리 대표 선발기준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트랙·필드 종목에서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과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결승 기록 평균을 내 이 기록을 넘어서는 선수만 뽑을 예정”이라며 “또 시즌 핵심인 성격인 전국 육상 선수권대회에서 종목별 1위를 차지하는 선수에게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자동 배정할 참”이라고 소개했다.

연맹은 남녀 47개 세부 종목에서 총 100명의 선수로 대표팀을 구성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광자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육상은 남녀 멀리뛰기, 여자 100m 허들, 남자 마라톤에서 금메달 4개를 따낸 바 있다.

/연합뉴스



컬링 금빛 꿈 ... “느낌이 좋아”

한국 여자 컬링대표팀 이슬비, 김은지, 신민성(왼쪽부터)이 12일 중국 상하이 페이양 스케이팅 센터에서 열린 태평양-아시아 컬링 팀파인以至于 일본팀을 맞아 진지하게 경기를 벌이고 있다. ‘빙판 위의 체스’로 불리는 컬링은 20kg의 스톤을 빙판에 굴려 월새 없이 빗자루질을 해 표적판에서 치열한 자리 싸움을 펼친다.

/연합뉴스

전남교육청 ‘체육 인재육성 장학기금’ 1억 기탁

‘전남 체육 인재육성 장학기금’(이하 장학기금) 모금에 가속도가 붙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열린 전국체전 전남도선수단 해단식에서 장학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그동안 2억원을 기탁했던 도 교육청은 총 3억원의 장학금을 출연했다.

또 이날 황재우 전남도체육회 부회장·광양기업 대표이사가 1000만원을, 서정복 전남축구협회회장(전남도체육회 부회장)이 20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주고 기탁했다.

지난 2009년부터 조성되고 있는 장학기금은 12일 현재 14억286만원에 달한다.

장학기금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간 경기력이 뛰어나고,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선수 227명(초등 3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70만원, 대학 100



전남 체육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기탁한 서정복 전남축구협회장, 배용태 행정부지사, 전민재 전남도 교육감, 황재우 광양기업 대표이사(왼쪽부터).

만원)에게 전달됐다. 내년에는 68명(초등 33, 중등 17, 고등 12, 대학 6명)에게 총 32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내영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도내 기업체와 출향인사, 전남출신 스포츠 스타 등을 대상으로 전남체육의 미래를 위한 장학기금 20억원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골프여왕’ 쫓기는 박인비 쫓는 페테르센

박인비(25·KB금융그룹)가 여자 골프의 1인자 자리 수상에 최대의 고비를 만났다.

세계랭킹과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상금 랭킹에서 각각 1위를 달리는 박인비는 하반기부터 무서운 기세를 추격해온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과 14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골프장(파72·6626야드)에서 열리는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션에서 격돌한다.

박인비와 페테르센이 최근 같은 대회에 출전한 것은 한달 전 인천에서 열린 LPGA 투어 하나·외환챔피언십이었다.

이 대회에서 박인비와 페테르센

랭킹점수 0.63점 초접전
오초아 대회 나란히 출전

세계 1위 가리기샷 대결

은 각각 공동 28위와 공동 3위에 올라 우승컵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꾸준한 성적을 올리던 페테르센은 박인비가 출전하지 않은 선레이즈 LPGA 대만 챔피언십에서 우승, 박인비의 뒤를 바짝 추격했다.

12일 현재 박인비는 세계랭킹에서

11.98점으로 1위를 지키고 있지만 페

테르센이 11.35점으로 따라붙었다.

상금 랭킹에서도 박인비가 233

만5460 달러(약 25억361만원)로

선두지만 페테르센이 224만1847달러(약 24억325만원)로 차이는 9만3613 달러(약 1억35만원)로 좁혀졌다.

오초아 인비테이션의 우승 상금이 20만달러, 시즌 마지막 대회인 GME 타이틀 훌더스의 우승 상금이 50만 달러여서 우승 한번이면 페테르센의 역전이 가능하다.

지난해 오초아 대회에서 박인비는 준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냈지만 우승을 눈앞에 두고 크리스티커(미국)에게 역전패를 당했다. 올해에는 박인비가 멕시코에서 시즌 7승과 함께 각종 타이틀을 훔쓰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인비



해외 및 섬은 게재가 불가합니다.(육지만 가능)

11월 14일(목)

▲블레이크 명신팀방 11월 14일(목) 장흥 천관산, 07:30 엄주군부정건너편, 07:40 교원공제회, 07:50 문예후문, 08:00 동광주체육관으로 *다음카페 빛고을

블레이크목요산악회 □ 010 3619 3533

11월 15일(금)

▲광주철도사학회 11월 15일(금) 철대열차로 떠나는 부산 대마일차(무박 2박), 광주역 2350 집결 □ 010 9715 1000, 062 515 7788

11월 16일(토)

▲광주희망トイ신의회 11월 16일(토) 자연이 살아있는 디자이너의 숨은 보물 금모비 빛길과 배봉산, 엄주체육관 06:00, 광주역 06:15, 광주 청 입구 06:30 *다음카페 광주희망トイ신의회 □ 010 9002 3925, 010 7500 7210

▲광주미래로도산악회 11월 16일(토) 해남 두루산, 엄주체육관 07:00, 광주역 07:15, 문예회관 후문 07:30

ARS : 1544-0070 SMS : 1666-9570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5551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5551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5551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5551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5551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5551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5551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5551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5551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5551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5551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5551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5551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5551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5551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5551